

꽃향 과일향이 나는 '보성청차' 젊은층에 인기



녹차수도 보성군은 오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북채와 한국차박물관에서 청차 제다 교육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차산업과 차문화를 이끌어 온 보성군은 2010년부터 중

국, 호주 등 해외 차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차 제품 개발을 위해 청차, 홍차, 황차, 블렌딩차 제다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국내 최고 제다·품질 전문가를 초빙해 제다교육과 품질교

보성군,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차 음료 개발 주력 소비자 좋아하는 차 개발 위해 청차제다 교육 추진

육,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보성전통차농업 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해 보성차 명품화에 나선다.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청차 제다교육, 10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차 품질평가 교육을,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전통차 농업 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청차는 발효차의 하나로 꽃향 과일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발효도가 약한 백차와 강한 홍차의 중간 정도로 '반 발효차' 라고도 한다. 주로 중국 복건성 북부의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암차와 복건성 남부의 안계철관암차, 대만의

우롱차 등이 청차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성군은 백제시대 이전부터 사찰주변과 미령면, 회천면, 응치면 일대에서 자생했던 보성재래종을 주원료로 보성청차를 만들고 있으며, 국내 최고 청차 전문가와 재래종에 맞는 청차 제다방법을 개발해 중국과 대만의 명차에 버금가는 차를 만들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청차 제다법은 찻잎을 따서 뒤거나 찌서 만든 녹차나 발효시키거나 찌서 찻잎(발효차)와는 다르게 찻잎을 따서 일정 시간 햇빛이나 그늘에서 시들리기 하면서 손으로

가볍게 교반한 후, 대나무 채반에 넣고 흔들어 찻잎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세한 발효를 유도한다.

주로 이 과정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발효를 시킨 차를 살청하고 비비기와 건조 과정을 거치면 청차가 만들어진다. 청차는 향을 좋아하는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 주로 인기 있어 몇몇 다원에서 일찍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은 녹차와 홍차, 떡차의 주산지이지만 트렌드에 맞춘 황차, 청차, 블렌딩차, 혼합음료 등 새로운 차와 음료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 및 차 연관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 차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오는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한다

광양시는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기존 착한가격업소 52개소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오는 21일까지 신규 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다른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하며, 외식업과 이·미용,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업소가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며,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쓰레기 봉투 등 물품이 지원되고, 행정안전부·전라남도·광양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신규 신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거쳐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기준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적격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시민로 UD 시범거리 현장토론회

향후 발전방향 등 논의

순천시는 최근 시민로 UD 시범거리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허석 순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상인, 지역 주민대표, 장애인·노인·여성 등 다양한 이용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토론회는 시민로 UD거리의 향후 발전방향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순천시를 대표하는 UD거리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발전방안, 마감 시점에 농민사업의 개선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 의견 및 건의사항으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

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간판 등 상점 시설물 및 거리 내 조형물 정비, ▲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간조명 및 경관 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허석 시장과 소관 부서장의 답변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순천시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사항과 상인회,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9월 중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향 확충과 실행을 통해 시민로 UD거리를 활성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지속적 정보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로컬푸드 직매장 국비 공모...전국 유일 2곳 선정

6억 5천여만 원 확보...여수농협 문수동 264㎡, 여수원협 여천동 800㎡ 규모

여수시가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국비 공모사업에서 전국 14개소 가운데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돼 국비 6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여수농협과 여수원협으로, 문수동과 여천동에 각각 들어섬, 3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공모사업은 부지 적격성, 입지조건, 직매장 운영 계획 등 1차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공모를 통해 국비 5억 300



만 원, 도비 1억 5,1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6월 추경으로 시비 3억

5,200원을 확보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고흥군 '고흥 청년 드론스쿨' 참가자 모집

고흥군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드론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20명 계획으로 내부 선별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중 보조금을 제외한 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장소는 남양면 망주리에

위치한 고흥농기총행복학교이며 이론과 실습교육 6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운영은 9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마린로보틱스에 위탁 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하반기 전남개발공사 신규직원 공개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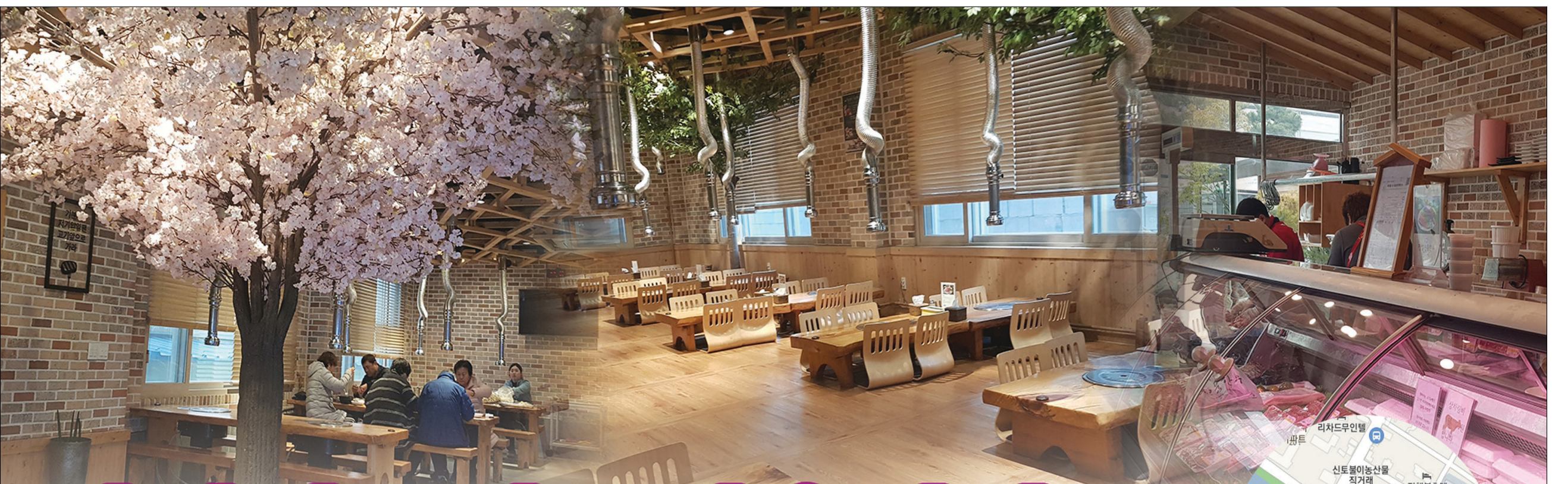
전남개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고용확대를 위하여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직원(6급) 공개채용 분야는 행정 2명, 기계 2명, 전기 1명으로 총 5명이며, 이 중 행정 1명은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9~10월 중 1차 필기전형, 2차 적격심사, 3차 면접전형을 거쳐 10월 23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지역제한으로 모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별도 모집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